



# 캐나다 사슴협, 본회와 교류협력 약속

- 질병, 생산기술, 마케팅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 갖기로 -

본회는 지난 2월 5일 오후 7시 서울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캐나다 사슴협회 임직원과 회담을 갖고 양국 생산자단체 간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캐나다 사슴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날 회담에서 테리처치 캐나다 사슴협회 회장은 “마케팅, 질병문제, 생산기술 등 양국간 공통관심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교류협력이 미비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가져 양국 양록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회 김은성 회장은 “캐나다의 앞선 종록 개량 기술, 양록 생산물 가공 기술 등은 한국 양록산



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생산 기술, 질병 대처 방안, 양록연구 등 지속적인 협력으로 양국 양록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마케팅 분야의 공동 노력으로 제 3시장 개척에도 힘을 모으자”고 제안

했다.

이날 3시간여에 걸친 회담에서 양국 생산자 대표들은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캐나다 녹용 수입금지 조치, 절편녹용 문제, 종록 정액 수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본문기사 참조) 향후 지정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지정 채널은 본회 성 락 사무총장과 캐나다 사슴협회 써지뷰이 이사(캐나다 사슴협회 실무책임자)가 결정됐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캐나다측 대표로 테리처치 회장, 써지뷰이 이사, 배리 호브리치 기술자문의원, 마이크 브링건 학술자문의원, 머레이 피어슨 농무담당 참사

관이 배석했으며 본회에서는 김은성 회장, 배소식 부회장, 이성복 이사, 박호균 이사, 성 락 사무총장, 손성훈 대리가 참석했다. **민국양록**